

민간치료 방법에 대한 지혜

너무 피로해 잠 못 들 때 식초 마시면 잠 잘와

잠이 안오거나, 불면증에 시달릴 때 식초를 큰 숟가락으로 한 술 떠서 마셔보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피로한 몸은 파김치처럼 산성경향을 띤다. 식초에는 산성화된 몸을 위한 알카리성으로 바꿔주는 작용이 있다. 식초를 마시면 불가사의하게 잠이 잘 온다.

설사약 없을 때 날계란 넣은 녹차 효과

설사는 나고 금방 약품을 구하기 힘들 때 전하게 탄 녹차를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녹차에 함유된 탄닌 성분이 위장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날계란을 녹차에 넣어 저으면 흰색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설사를 중지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한다.

무좀 고생 땐 헛볕에 말린 굴껍질 태워 연기 써면 효과

여름만 되면 무좀이 재발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무좀약이나 무좀퇴치의 비방도 많지만 완치가 잘되지 않는다. 이럴 때 헛볕에 바짝 말린 굴껍질을 태워 그 연기를 써어주는데, 하루 4~5차례씩 2~3주일 계속하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파래는 니코틴 중화에 탁월한 효과

파래는 인체에 해로운 각종 산을 없애주기도 하지만, 담배의 니코틴을 중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쉴새없이 담배연기를 끊어대는 애연가들에게 파래는 보약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파래는 지속성 비타민 식품이므로 날마다 먹지 않고 가끔씩 먹어도 효과가 있다.

위염, 위궤양에 양배추 날 것 먹으면 효과

현대인들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심한 음주 습관 등으

로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 같은 위염이나 위궤양에는 양배추를 날로 썰어서 먹거나 주스로 만들어 보름정도 먹으면 효과가 있다.

칡뿌리, 대추씨 달여 마시면 갱년기 피로해소에 좋아

갱년기가 되면 피로나 권태가 오고, 미열이 나면서 목덜미에서 뒷골까지 굳은 듯이 뻐근해지는 때가 있다. 이럴 때는 깨끗이 씻은 칡뿌리를 잘 달여서 차 대신 장기간 마시면 효과가 있다. 또 대추씨에 감초를 조금 넣고 서서히 달여서 매일 아침·저녁 장기간 복용해도 좋고, 두릅잎을 삶아 나물로 만들어 장기간 일상식으로 먹어도 좋다.

어혈로 생긴 몸의 부기엔 홍차를 마시면 가라앉아

홍차에는 어혈을 풀어주는 성분이 있다. 따라서 홍차를 매일 두 번 2g 정도 달여서 복용하면 어혈로 인해 생긴 몸의 부기를 뺄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의 생리통으로 인한 몸의 부기에 좋다.

생강 씹어 먹거나 달여 먹으면 감기에 효과

생강을 날로 씹어 먹고 땀을 내면 감기가 잘 낫는다. 생강즙 반 흡네 술 한 스푼을 넣고 달여서 공복에 먹으면 더욱 효과가 있다. 생강즙은 토란에 중독됐을 때 마셔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악성변비엔 볶아 찧은 참깨 마늘뿌리 3개와 함께 복용

악성변비가 있으면 참깨 100g을 볶아 찧어서 마늘 뿌리 3개와 함께 저녁 먹을 때 먹는다. 이렇게 며칠을 반복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계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껌질을 벗긴 마늘을 삶아서 마시면 해독에 효과가 있다. ☺